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FINN AND THE INTERGALACTIC LUNCHBOX

가제 : 도시락 통에 열린 우주 통로

저자 : Michael Buckley

출판사: Delacorte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20년 4월 28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SF 소설



*** 열띤 옥션으로 50만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계약 체결된 3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초판 3만부 발행 예정**

***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SISTER GRIMM』 시리즈, 『NERDS』 시리즈 작가의 신작**

거대한 우주를 정복하려는 야심으로 별의별 무기를 다 확보하려는 외계 곤충 종족 ‘플라그’ 틈에서 스파이로 숨어 살던 맥스는 플라그 무리가 숨겨둔 고대 무기를 빼돌리다 들켜고 만다. 먼 옛날,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았던 알케리아라는 행성을 무참히 파괴한 플라그는 가장 명석한 학자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무기를 개발하도록 강요했다. 우주 어느 곳에서도 본 적 없는 기발하고 강력한 무기가 줄줄이 탄생하자 자신들의 우주선 깊숙이 숨겨두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저항군은 우주 전체를 위협할 그 위험한 무기를 없애기 위해 맥스를 스파이로 침투시킨다. 1년 정도만 기다리면 열세 살이 되는 어린 나이지만 저항군이 가진 로봇 중 가장 튼튼하고 똑똑한, 그리고 키도 2미터가 넘는 하이빔도 함께 잠입한 덕분에 맥스는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었지만 막바지에 정체를 들킨 것이다.

가느다랗고 끝은 뾰족한 다리, 거대한 턱, 쇠처럼 단단한 노란색 피부에 털 새 없이 파르르 진동하는 거대한 날개가 달린 플라그는 생김새 못지 않게 잔혹한 종족이었다. 적으로 간주된 상대의 몸속에 작은 곤충 알을 낳고 그 알에서 깨어난 플라그 새끼가 속에서부터 희생자를 우걱우걱 먹어 치우도록 하는 잔인한 수법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맥스가 알케리아 과학자들이 만든 ‘웜홀 생성기’라는 알쏭달쏭한 무기를 백팩에 숨겨 달아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플라그들은 훔쳐간 것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속에 알을 낳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하이빔은 꼬맹이 주인에게 열린 무기를 던져주고 목숨이라도 구하자고 설득하지만 맥스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플라그 손에 들어가면 우주 전체가 붕괴되고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올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이 끈질긴 종족의 무기로 활용될 것이 뻔한 만큼 절대 돌려줄 수 없었다. 그것이 우주의 평화를 지키는 저항군의 사명이고, 맥스가 저항군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였다. 플라그가 거대한 앞다리를 내미는 찰나, 맥스는 조금 전 훔쳐온 웜홀 생성기를 꺼내들고 마구 흔들기 시작한다. 사방에 거대한 진동이 일어나고 큰 폭발음이 들린 직후, 맥스의

는 앞에 우주 공간으로 이어진 정사각형 통로가 나타난다. 컨트롤 패널을 재빨리 조작해 저 멀리, 은하수 근처에 있는 ‘지구’라는 푸른 행성을 목적지로 정한 맥스는 대형 통로가 지구와 연결되자 곧바로 하이빔과 워홀 생성기를 던져버린다. 빈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끝도 없이 이어진 워홀은 공교롭게도 교장실에서 별을 받고 있던 한 소년의 도시락통으로 이어진다.

핀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교장선생님 손에 이끌려 교장실에 앉아 있었다. 아침부터 하교할 때까지 사사건건 핀을 괴롭히는 링컨과 또 싸움을 벌이다 걸렸기 때문이다.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하고 친구를 사귀기도 전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핀을 계속 놀리고, 이죽대는 링컨 때문에 열한 살 핀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가고 엄마, 여동생과 함께 도망치듯 이곳 뉴욕 콜드스프링으로 이사를 와서 오랫동안 사귀 친구들, 이웃들과 억지로 헤어진 것도 서러운데,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 이런 못된 아이의 표적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일하느라 피곤한 엄마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혼자 해결해보려다 또 다시 교장실에 끌려온 핀은 더 봐줄 수 없으니 퇴학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듣는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핀에게, 교장 선생님은 둘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친구가 될 때까지 교장실에 있으라는 말만 남긴 채 밖으로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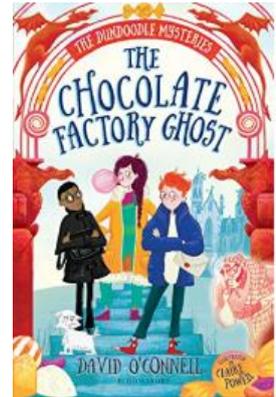
아침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교장실에서 꿀 보기도 싫은 링컨과 단둘이 밥까지 먹게 된 핀은 도시락 가방을 꺼내다가 기겁한다. 등교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꼬마 여동생의 도시락과 바꿔서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유치한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도시락을 본 링컨이 배를 잡고 웃는 사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도시락 뚜껑이 미친듯이 덜그럭대더니, 핀이 영문을 몰라 뚜껑을 슬쩍 들어 올리자마자 웬 네모난 기계 하나가 날아와 가슴에 철컹, 붙어버렸다! 알 수 없는 기계가 몸에 고정되자 핀의 눈 앞에는 생전 처음 보는 우주 곳곳의 풍경이 쏟아져 쏟아져 흘러가고, 활짝 젖혀진 도시락 속에 행성들로 가득 한 우주가 보인다. 거부할 틈도 없이 그 속으로 핀이 빨려 들어가듯 사라지는 광경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링컨은 슬며시 교장실 밖으로 달아나려다 깜짝 놀란다. 핀의 가슴에 붙어버린 기계와 함께 날아온 웬 로봇이 교장실 구석에 찌그러져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맥스가 던진 고대 무기가 어쩌다 몸에 붙어버린 채로 워홀로 들어간 핀은 이를 갈며 무기를 찾는 플라그와 마주하고, 하이빔과 맥스는 각각 지구와 다른 행성에서 핀과 무기를 모두 구하기 위해 애쓴다. 핀의 숙적이던 링컨과 핀이 남몰래 짝사랑해온 같은 반 여학생 줄랩까지 가세한 가운데, 무기를 몸에 지닌 핀은 지구와 우주 전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된다. 우주와 시공간을 넘나드는 액션과 속도감이 넘치는 상상력과 결합된 흥미진진한 SF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이클 버클리(Michael Buckley)는 오하이오 대학교를 졸업하고 ‘데이빗 레터맨 쇼’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디스커버리 네트워크, MTV 등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 저서로는 22개 언어로 번역되고 200만 부 이상 판매된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ISTER GRIMM』 시리즈와 7개 언어로 번역되고 100만 부 이상 판매된 『NERDS』 시리즈가 있다.

제목 : THE DUNDOODLE MYSTERIES:
THE CHOCOLATE FACTORY GHOST
가제 : 초콜릿 공장의 유령 (던두들 마을 미스터리 시리즈)
저자 : David O'Connell(글), Claire Powell(그림)
출판사: Bloomsbury Children's Books
발행일: 2020년 4월 5일
분량 : 208쪽
장르 : 9세 이상, 모험 소설



- * “모험과 코미디, 마법이 결합된 만족스럽고 즐거운 이야기” - 「Books for Keeps」 매거진
- * 「How to Train Your Dragon」 과 「Tilly and the Time Machine」 의 팬들이 좋아할 만한 신작 - 괴상하고 참신한 단서로 푸는 미스터리, 낯선 생물체, 못된 친척들, 달콤하고 화려한 간식들이 가득한 이야기

‘가족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으니 허니스톤 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치와 엄마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밝힌 사람이 보낸 이 편지를 받고 몇 시간을 운전해서 스코틀랜드 외곽의 던두들 마을에 도착한다. 허니스톤 홀은 엄청나게 크고 굉장히 낡은 저택이었다. 곳곳에 거미줄이 잔뜩 끼어 있고 먼지도 자욱한 서재로 안내 받은 두 사람은 편지를 보낸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를 뒤적이는 동안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린다. 그런데 벽난로 위에 걸려 있던 거대한 초상화가 어딘가 이상했다. 아치가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갑자기 짱긋 윙크를 한 것이다! 잘못 봤나, 싶은 찰나 초상화 속 남자는 아치 옆에 앉은 엄마 쪽을 향해 또 다시 윙크를 날린다. 그 때 마침내 서류를 다 정리한 변호사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얼마전 사망한 아치볼드 맥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아치 아버지의 삼촌이라는 것, 그리고 유언장에 전 재산을 아치에게 물려준다는 말을 남겼다는 사실이었다. 스코틀랜드는 물론이고 영국 사람치고 아치볼드 맥버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산골짜기 마을에도 하나쯤 있는 과자 가게 ‘맥버지’의 대표가 바로 아치볼드 맥버지였다! 특히 아치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맥버지 퍼지는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맛이 그야말로 일품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고 맛있기로 유명했다. 그 퍼지를 사 먹을 때마다 참 우연히도 이런 유명한 제품과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왠지 으스스했던 적도 있지만 정말로 혈연 관계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맥버지 과자 공장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성업 중인 과자 가게, 그리고 이 커다란 저택까지, 전부 아치의 것이 되었다. 엄청난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아치볼드 맥버지의 유언도 함께 전해진다. 유언장과는 별도로 친히 작성한 편지를 통해, 아치볼드는 아치와 같은 순수하고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과자 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신 맥버지라는 이름을 걸고 막중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물찾기 방식으로 아치볼드가 숨겨둔 여섯 가지 비밀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과연 살아 생전에 비

밀과 수수께끼를 좋아했던 아버지의 삼촌다운 테스트였다. 비밀의 개수만큼 여섯 개의 단서가 주어 지는데, 이 단서 역시 아치가 두 눈 크게 뜨고, 제대로 ‘맛볼’ 준비를 하고 찾아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 아치는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 신 후 늘 생활비를 버느라 쫓기듯 살아온 엄마를 생각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다. 아치는 무조건 여섯 개의 비밀을 찾고 테스트에 통과해서 맥버지 가의 자랑스러운 상속자 가 되기로 단단히 결심한다. 그 순간, 아치볼드의 초상화가 또 다시 웅크를 보냈다.

던두들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는 플리스와 빌리와 금세 친구가 된 아치는 두 사람의 적극적인 도움 으로 단서를 하나씩 찾아간다. 하지만 허니스톤 홀로 이사를 온 날부터 왜 아빠가 아치볼드의 존재 나 전 세계적인 회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겨왔는지, 왜 아치볼드가 아치에게 남긴 편지 에 ‘돈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 항상 조심해야 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지 확실하게 드 러난다. 아버지의 사촌이자 아치의 고모인 재키가 아치볼드의 유산이 다 아치에게로 갔다는 사실에 길길이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남편과 함께 ‘푸딩햄 파이 쿠키’라는 또 하나의 유명 제과 업체 를 운영하면서 재산을 부족함 없이 모아 놓은 재키는 돈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맥버지 퍼 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맛, 전 세계 어떤 퍼지와도 다른 특별한 맛을 내는 비밀 재 료를 아치볼드가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재키 고모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미 유명한 푸딩햄 파이쿠키에 맥버지 퍼지의 비밀 재료까지 더해지면 세상 사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엄청난 맛이 탄생하리라는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아치가 플리스, 빌리, 그리고 아치볼드의 애완견 셔벗과 함께 공공 숨겨진 수수께끼의 단서를 찾는 동안 과자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전국의 상점이 탈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할 책임을 모 두 짊어진 아치의 엄마는 허니스톤 홀 근처에 자리한 공장에서 문제의 비밀 재료가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두 눈에 욕심이 그득하던 재키가 저지른 소행이 분명했지만, 교활하고 뻔뻔한 재 키에게서 다시 재료를 빼앗아오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아치는 한껏 부풀었던 밝은 미래의 꿈이 햇빛 아래서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처럼 사라지 기 전에 비밀 재료를 되찾고 아치볼드의 테스트도 통과할 수 있을까? 곳곳에 마법이 가득한 던두들 마을에서 아치와 친구들이 벌이는 보물찾기는 매번 감탄을 자아내는 기막힌 단서와 함께 감각적이 고 세련된 일러스트로 더욱 생동감 있게 그려진다. 유쾌한 유머와 아치의 대담한 도전이 매력적인 이 ‘던두들 미스터리’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는 2권 『어둠 속의 치과의사(The Dentist of Darkness)』로 이어진다.

<저자 소개>

데이빗 오코넬(David O’Connell)은 사우스 런던에서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마법과 괴물이 등장하는 아동서 작업에 주로 참여해왔다.

클레어 파웰(Claire Powell)은 런던에서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니켈로데온, CBBC, 드림웍스 등 대형 TV 방송사와 영화사에서 일했다. 단편 애니메이션 <The Scapegoat>로 2015년 영국 애니메이션 영화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단편상을 수상했다.